

# “불교식 제사 지낸다” 불자 13%

불교장례문화연구-한길리서치 666명 조사

## “불교식 어렵다” 대부분 선입견

##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 반수 이상 응답

많은 불자들이 불교식 제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그 방법을 모르거나 혹은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유교식 제례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덕진(한국불교장례문화연구회장, 고려대 강사) 박사가 추석을 앞두고 한길리서치에 의뢰, 8월 한 달 간 666명의 불자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에 대한 의식과 그 방법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이 통일된 ‘불교제의식집(가칭)’을 요구하는 등 불교식 제례에 대한 홍보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6.4%가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이중 84.5%가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불교식으로 지내는 가정은 13.3%에 그치고 있었다. 불교식 제례가 불자 가정에서조차 등한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서’ 혹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등의 이유로 불교식으로 지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 응한 불자들의 35.6%가 불교식 제사는 절에서만 모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11%는 불교식 제례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으로 밝혀져 불교식 제례에 대한 관심이나 홍보가 저조함을 시사했다.

한편 불교식 제례로 바꿀 의향을 묻는 질문에 70.7%가 ‘그렇다’고 대답해, 불자 4명 중 3명 정도는 불교식 제사를 지낼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응답자 대부분 ‘불교식 제례가 어렵다’, ‘목탁을 치고 염불, 독경하는 것이 어렵다’, ‘한문이나 진언으로 되어 있는 경전의 내용이 어렵다’ 등 불교식 제례와 관련해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85.2%가 ‘통일된 불교 제례가 마련된다면 불교식 제사를 지내겠다’고 응답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불교식 제례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응답자들은 불교제의식의식의 통일화(37.9%)를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불교제의식의식의 대중화 한글화 간소화 △타종교(유교)와의 집합에 대한 관용 등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덕진 박사는 “불교식 제례에 대한 일반화가 시급함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의식 자체가 개선되면 명절제사나 기제사를 불교식으로 지내는 가정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21일 오후 1시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리는 한국불교장례문화연구회 제1차 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 ‘가정에서의 불교식 제사(佛)’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불교식 제사의식의 실현도 진행된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a.com

## 석문호서 토종치어 방생

수덕사-충남도 24일... “생태방생 확산 기대”

그동안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아온 무분별한 물고기 방생이 자연 생태계를 살리는 방생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6월 조계종과 환경부가 도전사에서 야생동물 방생과 나무심기, 꽃피 나눠주기 등의 환경살리기 방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조계사가 다친 야생동물들, 두레생태기행과 ‘맑고 향기롭게’가 재철을 방생한데 이어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방장스님)가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친환경적 방생법회를 개최한다.

수덕사가 24일 오전 10시 당진 석문호에서 개최하는 이 방생법회에는 제7교구 말사 40여 사찰의 주지 스님 및 불자를 비롯 3,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할 예정이다. 이번 방생법회는 조계종이 ‘방생지침서’를 발간하는 등 무분별한 방생문화를 바꾸기



△‘사회봉사 박람회’를 둘러보는 대학생들을 친절히 안내하는 동국대 봉사단 봉사단원

## 동국대 사회봉사 박람회

동국대 참사랑 봉사단(단장 김용기·학생처장)은 12일 동국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사회봉사기관 박람회를 개최했다. 박람회에서는 각 사회봉사기관 실무자들이 자신의 부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기관 및 봉사프로그램을 설명

하고 봉사자 접수도 받았다. 학교 측은 자원봉사활동에 나서는 학생들에게 2학점까지 학점을 인정해주는 한편 봉사활동 적립에 따라 재학중 1천 시간 이상 봉사할 경우 등록금 전액, 700시간 이상은 등록금 반액, 250시간 이상은 장학금 30만원의 특전을 베풀기로 했다.

김종근 기자

## 조선족 복지센터 추진

## 광주종교인평화회의

광주종교인평화회의는 ‘조선족 등포를 생각하는 모임’을 결성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조선족 돕기에 나선다.

광주종교인평화회의는 11일 실무위원회를 열고, △조선족복지센터(가칭) 건립 △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 외국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을 등포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재외동포법 개정운동 △생필품, 장학금 전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8월 20-25일 중국 길림성 현지답사를 실시한 광주종교인평화회의는 5박 6일간 3만여 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는 연길, 용정 등에서 ‘조선족 사기 피해자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정강 종교인평화회의 사무국장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첫 행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생명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전개하는 이번 방생법회에 사용될 물고기는 내수면 시험장에서 양식한 치어 25만 마리. 법회에서는 ‘친환경적 사고로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의 환경선언문도 발표될 예정이다.

조계종 7교구 수덕사는 이번 법회를 계기로 본·말사 전체가 ‘환경운동’과 ‘인간방생’으로의 방생문화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7교구 본·말사는 이에 따라 나무심기, 꽃피 나눠주기, 야생동물 돌려보내기 등의 환경행사를 통해 환경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은 “조선족 동포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조선족 돕기 운동이 일회성, 전시성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민족 통합의 차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종교인들이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종욱 기자

## 범어사 前 재무스님 징역2년

## 부산 동부지원 선고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면서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범어사 前 재무스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하광룡)는 14일 오전 범어사 前 재무 석호스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지권과 신도회 등 각



## 승가대 발전기금 탁발

중앙승가대 총학사회는 학교 발전기금 모금을 목적으로 13일 오후 중로구 일대에서 탁발행사를 진행했다. 중앙승가대 확인 150여명은 조계사에서 입재식을 가진 뒤 저마다 발우를 들고 국세청-탐골공원-인사동을 돌며 승가대 육구현을 위한 사부대중의 동참을 호소했다.

총학사회장 일음스님은 “미려한 힘이나 학교에 도움이 되고자 탁발행사를 봉행하게 됐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교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앙승가대는 9일 중앙승가대 명예학장 석주스님과 총장 직무대행 종석스님 등 학인과 신도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구 기숙사(육화당)와 비구녀 기숙사(화경당) 법당의 본존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한명우 기자

## 해인사에 소방출장소 생긴다

## 장경각 등 목조유물 보호

팔만대장경, 장경각 등 문화재의 보고 해인사에 문화재 보호를 위한 소방출장소가 들어선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유네스코 (UNESCO) 지정문화재인 팔만대장경을 비롯해 국보 3점, 보물 13점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해인사 목조전각 32채에 대한 화재 진화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인근 소방출장소를 경내로 옮기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인사 소방출장소는 사찰에서 약 3km가량 떨어져 있어 즉시 출동하더라도 약 10분이 걸려 초기진압이 힘들다. 소방본부 측은 해인사 자체 소화 시설로는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방본부는 해인사측과 경내 출장소 설치 부지(300여평) 사용 협의들

마쳤으며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소방 펌프카 2대를 갖추고 있는 현 출장소 근무 인원도 2명에서 4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 “전통사찰법 개정안

## 보존보다 정부예속 강화”

## 김종찬씨 ‘참여불교’에 기고

“전통사찰 기능 상실시 지정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안은 고유 민족 자산에 대한 소유권 포기 선언과 같다. 정부와 총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통사찰의 대지를 서로 잡고 팔아먹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김종찬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은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세)의 ‘참여불교’ 9 10월호에서 ‘정부 예속강화로 대국민 고립 자초-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에 부처’란 칼럼을 통해 전사법 개정안이 문화유산의 ‘보존’이 아닌 ‘보호’라는 이름 아래 관료와 승려들이 서로 협잡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것에 불과하며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번 호에는 기획특집 ‘교단내 비폭력 평화실현의 과제’, 특별기고 전 조계종 포교연구과장의 ‘10.27법안을 아십니까?’와 전국불교운동연합 공동대표 박희택씨의 ‘불교통일운동의 새로운 맥락과 실천’ 등이 게재됐다. 02725-6231 김재경 기자

## 사후 시신기증 서약

## 6명의 공군 ‘동참’

지난 7일 진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이만근(공사 28기) 중령이 시신기증에 서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방장스님)의 주선으로 마련된 이 자리는 고급장교의 시신기증이라는 점도 주목되지만, 이에 자극 받은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 장병 5명이 시신기증 뜻을 전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부각됐다.

이날 제3훈련비행단에서 사후 시신기증을 약속한 공군장병은 이 중령을 비롯해 이 부대 송근우 소령, 김성환 대위, 박종재 원사, 김명길 상사, 박계환 주사 등 6명이다.

시신기증에 서명한 이만근 중령은 “죽어서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는 것 역시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오종욱 기자

**마음고인 禪房**

마음고인 선방의 명상 프로그램들은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정목스님과 함께 하는 ‘나를 찾는 명상’
- 매일 새벽 4시 30분: 정기법회

경남 구 신사동 4거리(전번 38번) 5층

☎ 02) 548-0218  
FAX 02) 548-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

#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조선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효용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 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운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 447-0047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 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상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⑩ 음택(산소) 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 생기가 되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례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수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천축, 연속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 (예)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삼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농원리 30-1(농원빌딩 3층)  
전화 : (031) 334-9490, 334-9491  
야간 : (031) 706-3060